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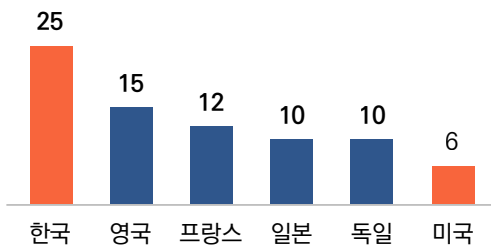
3. 우리나라 자영업 분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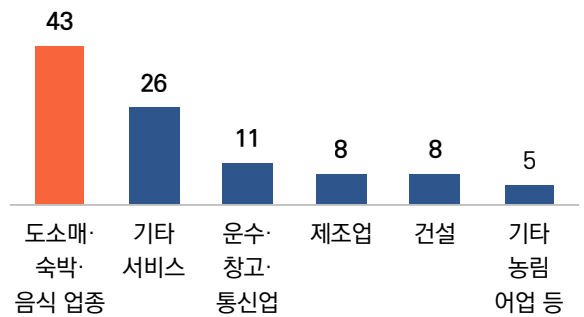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 25%, 미국(6%)에 비해 무려 4배가 높아

-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분석했는데,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5%로 나타났는데, 이는 OECD 주요국 중 영국 15%, 프랑스 12%, 일본 10%, 미국 6%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데, 특히 미국과는 무려 4배 차이가 나고 있다.
- 우리나라 자영업은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, ‘도소매·숙박·음식업’ 43%, ‘기타 서비스’ 26%, ‘운수·창고·통신업’ 11%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. 생활밀접업종인 ‘도소매·숙박·음식업’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한국 자영업의 특징 상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.

[그림] 자영업자 비중(한국 vs OECD 주요국**) (%)



[그림] 한국 자영업 업종 분포*** (%)



*자료 출처 : 한국경제연구원, '한 대기업 비중 미의 1/7에 불과,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미의 두 배', 2021.09.09

** 한국, 독일, 영국은 2019년, 프랑스, 일본 미국은 2020년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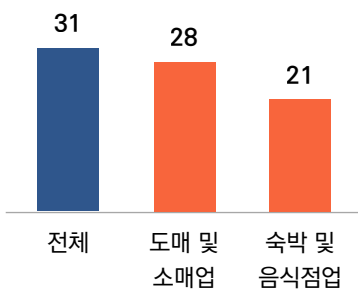
*** 위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내 '2020년 국세청 자료 분석'

Note)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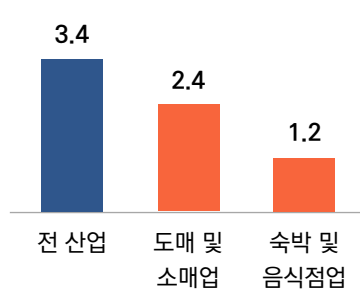
● 숙박/음식점업, 전 산업 대비 5년 생존율 2/3수준, 영업 이익률 1/3수준!

- 도소매, 숙박, 음식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반면 여러 가지 불리한 영업환경을 지니고 있는데, 5년 생존율을 보면, 전체 기업이 31%인데 반해, 숙박 및 음식점업은 21%로 전체 기업 대비 지속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또 업종별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, 전산업이 3.4%인데 반해, 숙박/음식점업은 1.2%로 숙박/음식점업의 수익성이 타 업종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,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밀착형 자영업자의 힘들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.

[그림] 신생기업 5년 생존율** (%)



[그림] 매출액 영업이익률*** (%)



*자료 출처 : 한국경제연구원, '한 대기업 비중 미의 1/7에 불과,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미의 두 배', 2021.09.09

** 위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내 '통계청(2018)' 자료 인용

*** 위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내 '한국은행(2019, 중소기업기준)' 자료 인용